



명품 경북교육

2013 여름 Vol. 83



고마운 여름

—
이
해
인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이
새삼 고마워서
“나무야, 나무야”
친구를 부르듯이
정답게 불러봅니다

나의 땀을 식혀주는
한 줄기 바람이
새삼 고마워서
“바람아, 바람아”
노래를 부르듯이
정답게 불러봅니다

장마 뒤에 쟁쟁 내리쬐는 햇볕이
새삼 고마워서
“해님, 해님”
하느님을 부르듯이
반갑게 불러봅니다

해 아래서
해에 익은 둥근 수박
여럿이 나누어 먹으면
크게
넓게
둥글게
열리는 마음

지구 모양의 수박을
먹을 때마다
지구 가족
우리 가족
하나 되는 꿈을 꾸는
고마운 여름

CONTENTS



04 명품교육 종합추진현황



06 자유학기제란?



08 경북 교육 뉴스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식 / 공공 도서관 소식 / 학교 소식



22 사진으로 통하는 교육



24 경북교육을 빛낸 별

25 학생기자단 발굴 소식

26 호국의 현장을 찾아서

28 아름다운 이야기

30 함께하는 경북교육

학교운영위원회 / 녹색어머니회

www.gbe.kr



표지이야기
울진학생아영장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들

제84호 경북교육 소식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기관별 우수사례 학교소식, 미담사례,
교직원 및 학부모의 글 · 그림 · 사진 등
보낼 곳 : khg2661@hanmail.net
T.053-603-3292
F.053-603-3296

발 행 일 2013년 7월
발 행 처 경상북도교육청
발 행 인 경상북도교육감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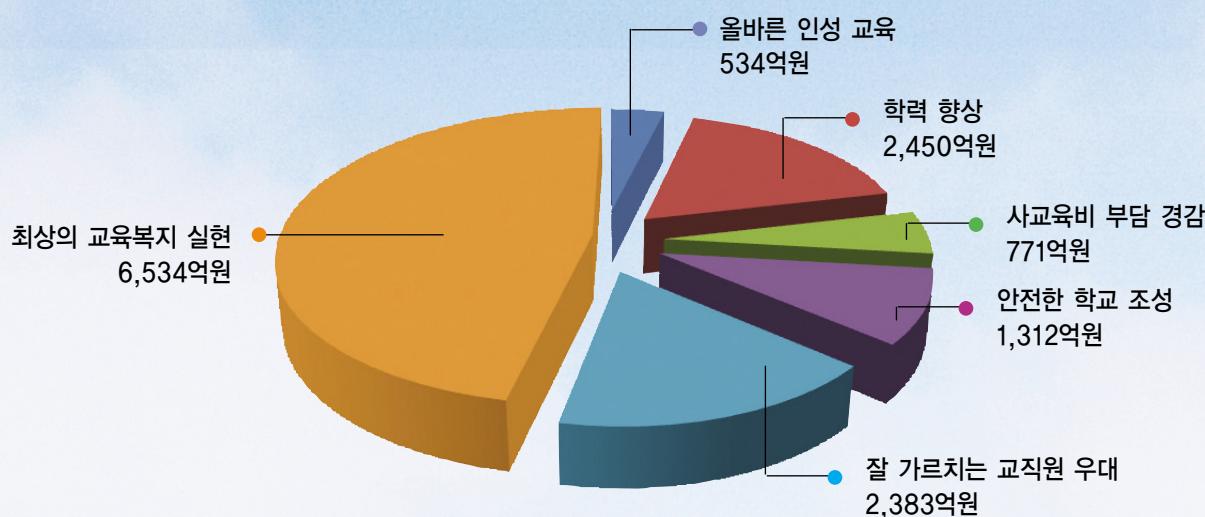


총 팔
편집위원
이영국(설포초 교사), 최종철(부항초 교사)
김윤지(삼성현중 교사), 한지영(북삼초 보건교사),
정지수(화양초 유치원 교사), 흥경애(경북학생문화회관 사서)

종합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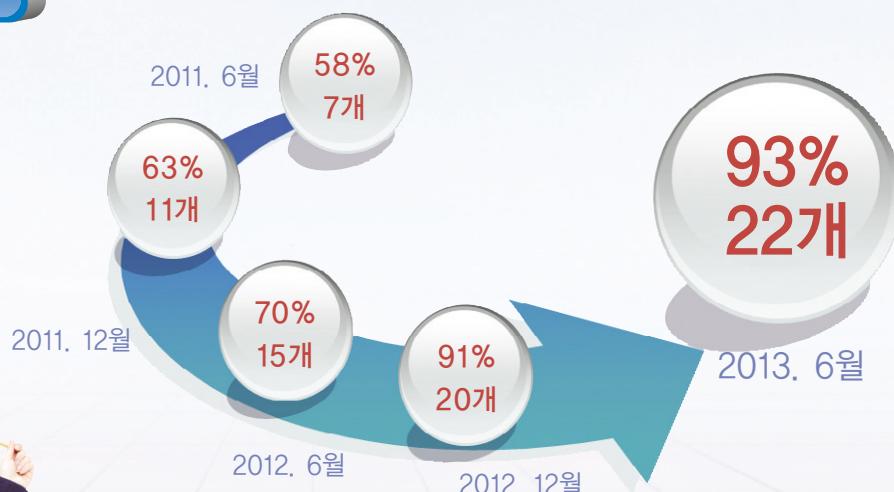
공약사항 개요

- 6대 분야, 30개 과제
- 사업비 : 1조 3,984억원
 - 분야별 사업비



추진상황

종합이행률 및 완료사업 현황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올바른 인성 교육

- 푸른 성장을 이끄는 고품격 학생 수련장 조성
 - 경북학생해양수련원 개원, 청도·안동학생야영장 현대화
- 경북 얼을 되살리는 정신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화랑정신·선비정신·새마을정신·대가야문화

학력 향상

-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력 책임 지원 체제 구축
 - 명품교육 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 학력 우수 및 학력 향상 학교 지원
 - 기초·기본 학력 정착 : 부진 학생 0.5%이하
- 영재 교육 수혜 비율 확대
 - 영재교육 수혜비율 : 1.4%(2010)→2.0%(2013)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방과후학교 내실화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 사이버 가정 학습 전 학생 무료 수강 지원
 - EBS 및 IPTV 전 학교 확대 지원
 - 양방향 원어민 화상 강의 시스템 운영

안전한 학교 조성

- 학교 안전망 구축
 - 전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제공
 - 학교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100%)
 - CCTV 100% 설치 및 카메라 증설

잘 가르치는 교직원 우대

- 인사제도 혁신 및 우수 교직원 우대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교육청 부분 1위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교원 처우 개선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증액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 신설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

- 무상 학교급식 확대 실시
 - 초·중학생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
-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 수학여행비, 수련 활동비 지원, 학비 감면, 정보화 교육비 지원
 - 연중 돌봄학교, 돌봄 교실 및 엄마풀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 다문화 가정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지원
 - 부모와 함께 가는 부모나라 방문 지원
 - 경산자인학교 개교,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자유학기제란?



질문있습니다. 자유학기제란?



9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강화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요?

미래사회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지요?

자유학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개의 중학교를 지정하여 ‘15년까지 3년간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14년에는 23시군별 1교 이상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운영하고, ‘15년에는 도내 중학교의 20%인 55개교를 희망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16년에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학교는 어느 곳인가요?

올해 9월부터 운영되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문경서중, 북삼중 2개 중학교로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게 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42개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학기제가 바뀌면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평가방법들도 다 바뀔 것 같은데요. 먼저 자유학기제 편성과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자유학기 운영 모형(예시)과 수업시수 증감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국·영·수·사·과 등 기본교과 중심으로 20시간가량 수업을 하고 오후 시간엔 주당 13시간 가량 기타과목과 선택프로그램,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오후시간은 학교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중간·기말고사 등 특정 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지만 수업 진도에 따른 형성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성찰 평가 등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연구학교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자유학기 동안의 내신성적은 고교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의 학기제와 다른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요?

자유학기에도 기본교과의 수업은 현재와 비슷한 시간으로 진행하지만 강의식·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문제해결 능력 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수업모델을 전환해 학생들의 흥미를 일깨울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특히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경우, 지금 열심히 공부해도 고입이나 대입이 힘든데 시간을 줄여도 되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제 참여가 추후 학교의 시험,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에도 국·영·수 등 기본교과의 수업은 충실히 운영됩니다. 수업 방식을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꾸면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는 무엇인지,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공부가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한지 알게 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정착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성적관리지침, 고입요강 등 관련 지침을 조기 개정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각종 체험기관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학교는 부담없이 운영하고, 학생은 꿈과 끼를 풍성하게 살찌우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대 최고가 된 경북 체육교육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서 펼쳐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5· 은메달 35· 동메달 40개를 획득, 총 110개의 메달로 종합 3위를 차지해 대회참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내며 대단한 위력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에서 육상을 비롯한 수영, 복싱, 사이클, 역도, 유도, 체조, 카누,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등 16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 종목 편차 없이 고른 종목에서 경기력 향상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는 그동안의 전략과 지원을 폭넓게 펼치면서 전략종목 양궁, 사이클, 역도 등 다수 메달종목 육성에 힘써온 결과이며 특히 금메달 6개를 획득한 양궁은 예천을 중심으로 양궁메카의 시설인프라와 육성팀의 환경 조성 등 3박자를 갖춘 곳에서 큰 재목을 발굴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전 경기종목에서도 대회 마지막날 출전 팀 모두가 금메달을 따내 대회본부를 흥분시켰다.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종목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하는 결과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성과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양궁의 김유경(예천동부초 6학년)선수가 4관왕의 영예와 종목별 최우수선수, 사이클 송민지(동산여중 3학년)선수는 종목별 최우수선수, 3관왕 2연패의 영예를 안으며 경북체육교육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학도 의용군을 잊지 말자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교육감은 6월 18일에 학생기자단과 학도 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찾았다. 이 날 이영우교육감과 학생기자단은 김문복(85세) 생존 학도의용군의 처절했던 포항여중 전투이야기와 전시관의 사진과 유물을 보면서 학도의용군의 희생이 얼마나 승고하고 고귀했는지를 실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솔(포항 동성고 2학년) 학생기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찾아 학도의용군의 고귀한 희생을 본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최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5월 6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부문 전국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학교현장 위기대응 메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고,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GETV를 통한 위기대응메뉴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훈련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 울진지역의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자연재난대비·대응훈련실시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훈련기간 중 이영우 교육감은 경주의 나산초등학교, 이성희 부교육감은 군위교육청,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은 구미 정보고를 방문·지도함으로써 일선학교 현장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책 읽는 아이들! 꿈이 자라는 학교!

경상북도교육청은 4월부터 독서교육 지도 자료 ‘책 읽는 아이들, 꿈이 자라는 학교’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는 ‘책따라 떠나는 독서올레!’ 지도를 위한 도움 자료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독서교육을 실시할 때 쉽게 펼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휴대가 간편하고 현장에서 손쉽게 독서를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고 교육의 요람, 스승의 전당

경상북도교육연수원(원장 임종식)은 5월 22일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전국교육연수원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연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은 전국 최대 면적에 산재한 다수의 학교 교직원(연수기관)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연수과정 편성, 우수강사의 체계적 관리 등 '3 zoom-up 현장 지원 연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수생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키는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학교폭력 아웃을 함께 외친 '시집가는 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관장 한승열)은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시집가는 날」을 무료로 공연하였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결과 입실초등학교를 비롯한 21개교 5,700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관람하였다.

「시집가는 날」은 청소년의 정서와 수준에 적합한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으로 희곡을 뮤지컬로 각색하여 우리 가락에 맞는 대사와 곡들을 요소요소에 등장시켜 시청각적인 재미를 높여 감각이 살아 숨 쉬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관람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화랑정신으로 찾는 경북의 정체성

경상북도 공무원 80명이 화랑교육원(원장 정경숙)을 방문하여 화랑정신을 배웠다.

'경북 정체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경북 정체성 학습 및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양동마을, 능지탑과 선덕왕릉에서 화랑의 발자취를 찾았고, 화랑교육원에서는 국궁, 탁본 체험을 통해 화랑의 얼을 깨우쳤다.

독도교육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

울릉교육지원청(교育장 김칠복)은 5월 30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란) 교육 관계자 40명과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독도교육 추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원 대상 텁방활동 프로그램 협력 운영, 독도 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 도시·어촌 문화 체험학습, 기타 양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류 협력에 대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요!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에서는 지구촌 시대에 맞는 다문화의식 고양을 위해 2013 어울림 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다문화 어울림교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세계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동학급의 다문화학생과는 배려와 나눔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또한 다문화예비학교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개별(1:1) 또는 그룹으로 이중 언어 및 주요교과 개념지도, 학업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자연을 즐겨라! 세상을 품어라!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영양군자연생태공원에서 2박 3일 동안 ‘2013학년도 일월산 꿈 키우기’ 학생 야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명경 교수의 집중력 향상법과 웃음 치료, 반딧불이 생태 숲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건강 관리법과 수련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전 함께 읽기로 독서수준 UP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관장 권영건)은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멘토, 고전 함께 읽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고전 읽기를 통해 책속에 담긴 전통 덕목을 본받고, 독서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참가를 희망하는 16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생 개개인 모두에게 고전도서를 지원하여 학급 전체가 같은 책을 읽은 후 고전분야 전문강사와 함께 다양한 독후활동을 함께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독서기차여행을 떠나요!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관장 장경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이 함께 독서하며 여행을 즐기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떠나는 독서기차여행’을 운영하였다.

초등3~6학년을 둔 가족 72명은 영주역을 출발해 군위 화본역으로 이동하면서 도서관에서 제공한 필독도서 삼국유사 깊이 읽기,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삼국유사, 화본역, 화본마을 이해하기, 독서골든벨,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움을 더하는 등 온 가족이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우리들은 1학년! 책날개를 펴자!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관장 장사연)은 관내 초등학교 6개교 1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책날개를 펴자’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2013 청도 책날개 선포식 ‘책날개를 펴자’는 어린이들의 밝은 성장을 돋고, 독서습관 향상 및 책읽기를 지원하고자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펼치는 북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으로는 청도가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다.

우리 도서관 담장은 특별해요!

경상북도립봉화공공도서관(관장 홍분선)은 ‘봉화 벽사랑 그리미’ 봉사단의 도움으로 텅 비어있고 허전했던 도서관 담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아이와 어른 모두가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 없이 주는 나무』 책 속 주인공과 책 속 배경으로 도서관 담장을 화사하게 꾸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친구야~ 불우이웃 돋는 시장가자

도산유치원(원장 송옥화)은 6월 11일에 유치원 강당에서 '알뜰시장'을 열었다.

"선생님, 시장놀이 정말 재미있네요.", "좋아하는 물건을 사서 기뻐요."라고 말하며 신이 난 원아들은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으며 이날 얻은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하였다.



몸튼튼! 마음튼튼! 정정당당! 파이팅!

6월 15일에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김천공립유치원 27개원 주최, 김천유치원(원장 반효숙)과 김천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칠룡)이 주관하여 유아 및 학부모, 교직원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박보생 시장과 남종호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해 화합과 열정을 격려하였고, 학부모 및 유아들은 협동심과 끈기, 우정,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생각 쑥쑥!! 창의 팡팡! 과학 꿈 잔치 체험

6월 19일에 동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최춘희) 및 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장병철) 등 문경공립유치원은 문경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생각 쑥쑥!! 창의 팡팡!' 과학 꿈 잔치 행사에 참가하였다.

유아들의 흥미와 과학적 호기심을 길러주기 위해 과학체험, 먹거리, 민속놀이, 퍼포먼스, 소방 관련 영역으로 나누어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는 교사의 질문에 반짝반짝 눈망울을 굴리며 곰곰이 생각하는 과학의 시간을 가졌다.





동시로 표현하는 내 마음 속 풍경

조마초등학교(교장 송옥수)는 6월 3일 교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신 장성태 선생님과 ‘동시로 보는 세상–동시 속의 보물 찾기’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시의 의미, 좋은 시 찾기, 시 바꾸어 보기, 행과 연 나누기 등 동시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시와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STEAM DAY

고령초등학교(교장 곽영수)는 6월 8일에 15가족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STEAM DAY를 열었다. 이 행사는 과학교육시범교육청 선도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게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는 기회를 주고자 실시되었다. 교사,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융합 인재교육(STEAM)에 대해 깊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MOM 학습도우미, 고맙습니다

경산중앙초등학교(교장 이순혜)는 5월 9일에 영어실에서 아름다운 교육재능기부 MOM 학습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MOM 학습도우미’는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 보조 및 학생들과 함께 수업 활동에 참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수준별 개별지도를 해주는 등 즐거운 학습 활동을 만드는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교생의 하모니, 사랑의 울림으로 퍼지다

구운초등학교(교장 이병찬)의 음악동아리 '구운 멜로스'가 6월 13일 구미 진평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1인 1악기' 지역예선대회에 참가하여 평소 같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김지정 외 전교생 74명이 모두 참가하였으며 기악합주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을 많은 관중 앞에서 연주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팀 중 평균연령이 가장 어리고 전교생이 모두 참가한 유일한 팀이어서 큰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얼쑤 좋다! 알록달록 한복 입고 학교에 가요

대교초등학교(교장 문정우)는 5월 16일에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제1회 전통문화체험의 날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전교생이 한복을 입고 등교할 것을 권장하여 많은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전통체험축제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교사들도 한복을 입고 출근하여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에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태현 천하장사 초청 씨름교실 개최

고아초등학교(교장 조중기)는 6월 19일 강당에서 천하장사 출신 이태현 용인대 교수를 초청하여 3~4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씨름교실을 개최하였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강의와 실기 지도를 맡은 이태현 전 천하장사는 씨름의 역사, 씨름의 이해, 씨름의 자세, 씨름의 기본기술 등 다양한 이론과 실기를 직접 보여 주면서 씨름의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바른 말 고운 말 사랑' 로고송 발표회

길안초등학교(교장 장국수)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7일에는 '바른 말 고운 말 사랑' 로고송 발표회를 가졌다. 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개사 곡 부르기로 바르고 고운 말 사용에 대한 의지를 갖기 위한 이번 발표회는 9팀이 참가하였다. 동요 곡 건전가요 중 한 곡을 선정하여 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개사하고 율동과 함께 표현하였다.

아빠! 나도 같이 가~

남산초등학교(교장 박병발)는 5월 25일, 용산산성에서 남산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져 긍정적이고 소통하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플래시몹

청도초등학교(교장 도정기)는 5월 22일 독도 바로알기 학습 주간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 전교생 700여 명이 참여하는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실시했다. 2013학년도 독도교육에 대한 의식 제고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도 플래시몹'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간놀이 시간에 운영한다.

숲과 나무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임고초등학교(교장 최필순)는 6월 17일에 계명대학교 강판권 교수를 초청하여 ‘나무와 창의력’이라는 주제로 숲과 나무를 통해 배우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했다. 강판권 교수는 ‘나무 자세히 들여다보기’, ‘나무에게 말 걸기’, ‘나무 나이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지혜와 창의력을 이끌어 내는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은 “앞으로 나무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피고 사랑하겠다”고 말하며 학교 플라타너스처럼 큰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멘토

신기초등학교(교장 윤희구)는 문경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지역 축구의 활성화와 축구 인재 양성 및 홍보를 위해 지역이 배출한 축구 국가대표 신풍훈 선수(현 포항 스텔러스 소속)를 초청하여 ‘신풍훈 축구교실’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축구교실에서 신풍훈 선수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축구 꿈나무들에게 소개하고, 문경의 체육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친구야, 사랑한데이! 짜장면 데이(day)

화북초등학교(교장 이창모)는 5월 30일, 화북 파출소(소장 정용석)와 연계한 짜장면 Day를 운영했다. 화북 파출소에서는 본교 및 분교 전교생 40명분의 짜장면과 탕수육, 군만두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교 도서관에서 경찰관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경찰관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독도! 음악으로 감싸다

효령중학교(교장 김옥자)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교생 51명과 교사 9명이 울릉도 독도 탐방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독도를 탐방하면서 1인 1악기 콘브리오 양상블팀이 우쿨렐레, 플루트 연주, 합창, 태극기 플래시몹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바람직한 국가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들아 사랑한 day~

삼성현중학교(교장 홍종구)는 6월 1일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자가 함께하는 스포츠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자(父子)축구친선경기, 가족 간담시간, 부자 사랑고백 포옹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소 학교방문의 기회가 적었던 아버지들에게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과 학교 교육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순심여자중학교(교장 황영지) 교정에는 5월 14일 오후 쉬는 시간, 학생들의 예쁘고 귀여운 마음이 흘러넘쳤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순심여중 · 고 전교생이 선생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종이로 커다란 꽃을 여러 송이 만들어 잔디밭에 큰 하트 모양을 만들고, 학생들이 꽃 주변을 둘러 싸 아름다운 하트를 그리며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며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꿈 찾아 떠나요~

상주여자중학교(교장 조재석)는 6월 8일 '꿈 찾기 진로 체험' 행사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안동 카톨릭 상지대학에서 제공하는 세계요리 체험(30명), 제과제빵 체험(30명), 미용예술 체험(28명) 프로그램에 총 8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평소에 꿈꿔 왔던 자신들의 미래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게임으로 치매예방 하세요!

대동중학교(교장 김만수) 게임놀이치료 봉사 동아리는 6월 12일 창포경로당을 방문하여 게임놀이치료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동아리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 내 전문 강사로부터 게임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게임놀이치료를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께 제공함으로써 학생 본인 치료 및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노인 공경심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동네 담벼락에 사랑꽃이 피었습니다

남산중학교(교장 이재국) 토요방과후학교 동아리 '아트스페이스' 반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행복재활원 벽화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행복재활원 생활인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효사랑 작은 음악회 열려

영동중학교(교장 구자도) '꿈누리재능봉사단' 학생 40명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5명은 5월 8일 아버이날을 맞아 보현요양원 및 보현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제2회 '효사랑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꿈누리재능봉사단'은 아버이날을 맞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색소폰, 통기타 등 음악으로 재능봉사를 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마를 해드리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녀들의 사랑나누기

상지여자고등학교(교장 여순금)는 5월 12일 문경 ‘효도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상지여고 학생 41명은 장지영 선생님의 인솔로 효도마을에 도착하여 노인 체험, 직접 만든 꽃 달아 드리기, 훨체어 닦기, 발 닦아 드리기, 안마 및 말벗 해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봉사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친 간경화 소식에 간이식 수술한 효녀

경안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학) 김혜은 학생(3학년)은 아버지의 간경화 소식에 선뜻 자신의 간 70퍼센트를 이식해 화제가 되고 있다. 6월 28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김혜은 학생과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 중이다. 경안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김혜은 학생의 용기와 효심에 응원하는 편지를 쓰는 등 ‘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 김혜은 학생의 결정과 행동을 고마워하며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으로 모두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통성년례로 아름다운 새 출발!

문경공업고등학교(교장 김진희)는 5월 21일 3학년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예절문화원 문경시지부가 주최한 제41회 청소년 집체성년례를 실시하였다. 성년식 거행절차는 거례선언, 큰 손님맞이를 시작으로 일동배례, 큰손님하단으로 거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도리와 책무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성화고에서 행복의 꿈을 쏘다!

경주정보고등학교(교장 김도현) 윤승우 학생(3학년)이 무한 경쟁 취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꿈을 쏘다! 현대증권 정규직편’에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종 3인에 선정되어 당당하게 현대증권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4살 때부터 부모와 이별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에 의해 자란 윤승우 학생은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할머니에게 평생 효도하며 살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혀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도전을 넘어 열정으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

봉화고등학교(교장 이세호)는 6월 21일 1·2학년 학생 230명과 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사제동행 향토순례 대장정을 실시하였다. 순례단은 청량산에서 봉화고등학교까지 총 28km를 걸으며 지역 문화유산 답사 및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향토사랑 정신을 고취하였으며 도전 정신과 극기 정신을 함양하고 사제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포항여자고등학교(교장 김말분) 독도지킴이동아리 지오스타트(Geo-start)는 5월 9일 관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활동을 펼쳤다. 지오스타트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제작 세계지도를 통해 동해 독도 바로알기, 우리 고장의 매력과 관광지를 스토리텔링 하여 알리기 등 원어민 선생님과 주제별로 이동해가면서 독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상호교류와 이해의 장을 만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신나는 문학 기행

점촌고등학교(교장 곽호열)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5일 학생 및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학 기행을 실시하였다. 정지용 시인의 생가 및 문학관, 장계국민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했던 부모님과 학생 사이에 문학을 통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진으로 통하는
명품교육

1

희망 찾 Go! 꿈 JOB GO!

일일 교육감 체험 학생들과 함께 (5.26)



2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수업' 특강

경주여고 학생들과 함께(5.14)

3

상주의 민요를 지키는 아이들

상주 성동초 민요동아리



4

난치병 친구 돕기 성금 모금

칠곡 왜관동부초

5

행복한 동행을 위한 힘찬 출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4.26)

4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일시 : 2013. 4. 26.(금) 17시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6

명품 경북 교육 실현을 위한 출범
제2기 경북교육발전협의회(4.29)

제2기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일시 : 2013. 4. 29(월) 11:40 장소 : 경주호텔



7

아름다운 한국 문화에 끝 빠졌습니다.
경북교육청 영어봉사장학생 문화 체험 연수





죽변고, 전국사격대회 4연패 달성

죽변고등학교(교장 구종모)가 2013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남고부 단체전 우승, 여고부 개인전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6월 8일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실시된 여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최순선 학생이 전국정상에 올랐으며, 다음날 치러진 남고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최정민, 김형민, 전정원, 임승재 학생의 고른 활약으로 정상에 올랐다. 죽변고등학교는 2013년도 전국사격대회 4연속 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전국 최강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전국 최강! 웅변 소년!

점촌중학교(교장 이춘대) 1학년 박재현 학생이 6월 1일 고구려 찾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나라사랑, 거레사랑 제6회 전국웅변 나의 주장대회’에서 영예의 ‘전체최고상’을 수상하였다. 박재현 학생은 고구려 찾기 운동본부와 중국조선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국 친선 웅변대회에 한국대표로 선발되어 8월 중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열변을 토할 예정이다.



양궁 신데렐라 탄생

예천동부초등학교(교장 임정달) 양궁부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며 초등 양궁의 새 역사를 썼다. 김유경(6학년)선수는 35m와 25m에서 금메달, 30m 은메달, 20m 동메달로 개인종합 금메달, 단체 금메달 등 4관왕에 오르면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다. 매일 천 발 이상의 활을 쏘며 연습에 매진한 김유경 선수는 김진호, 윤옥희 선수의 대를 잇는 양궁신데렐라로 불리며 경북체육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포항 천마산 전투에 참가했던 최기영 옹이 지난 22일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찾은 경북교육청 학생기자단 한영주(왼쪽), 이한솔양과 만났다.

나라에 바친 젊음 헛되지 않도록



북한침략에 2만7천여 학생들
펜 대신 총들고 참전

참전용사 최기영 옹
“현재의 평화로운 생활
학도의용군 희생덕”

7천여 명, 고통의 역사인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서 전사한 이들의 수이다. 학도의용군이란 6.25전쟁 때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한 의용병을 뜻한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학도의용군은 군번도, 계급도 없었다. 군복 대신 교복을, 군모대신 학모를 쓴 채로 열악하고 위급한 상황 아래 북한군에 맞선 이들을 주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학생기자단이 지난 22일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찾았다.

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일시적으로 휴교를 선언했고 학생들은 북한군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다. 2만7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발발한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했으며, 후방지역 또는 수복지역에서 선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2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국을 향한 애국심 하나로



6.25전쟁 때 포항 지역 전투에 참가한 학도의용군의 모습.

전쟁터에 뛰어든 이들이 있었다. ‘유령 부대’라고도 불리던 제일 학도의용군은 총 641명이 참전했으며 인천 상륙 작전 등 많은 전투에 기여했다. 타국에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해산 명령 후에도 잔류해 끝까지 조국을 지킨 모습에서 나라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구, 부산 등지에서 피난 도중 군에 지원하여 간호계통으로 참전한 여성들의 활약 또한 빛을 발했다. 특히 전쟁 중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에 속하는 포항은 학도의용군의 가장 큰 격전지였다.

포항 천마산 전투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신 최기영(82세) 할아버지가 학생기자단이 만나보았다. 최기영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신 천마산 전투는 해발 96m에서 12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뀔 만큼 치열했던 전투다. 또, 최기영 할아버지께서는 최초로 정부에 유해발굴을 청원했고 포항에서 유해가 발굴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는 “현재의 학

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학도의용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며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현재의 청소년들도 조국을 위해 학도의용군처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현재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했던 학도의용군. 6·25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는 올해, 작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지나친 도발로 인해 국가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학도의용군 선배님들의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사진=경북교육청학생기자단
포항 동성고 이한솔(2학년), 한영주(2학년)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 소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은 6·25전쟁 때 경북 포항지구 전투에 참가했던 학도의용군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의 산교육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6일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동 산 103번지 용흥 공원 내에 개관하였다. 총 면적 4,062m²에 연면적 903m²의 2층 건물로 총 16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1층은 전시실·안내실·사무실, 2층은 시청각실·세미나실·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체험 포인트

전시실에는 당시 학도의용군들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류와 착용했던 복장을 비롯하여 일기장, 사진 자료 등 귀중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시청각실에서는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명절에는 휴관한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은 전국에서 이곳 하나뿐으로 1950년 6·25전쟁 당시 희생된 이름 없는 학도병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해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영화『포화 속으로』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며 한국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배우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체험 공간이다.

● 시설 현황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03-14 (용흥근린공원 내)
- 시 설 : 부지 4,062m², 연전평 903m² (2층)
- 개 관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문 의 : (기념관) 054-270-5807, (포항시문화관광과) 054-270-2371
- 전시물 : 95점 (무기, 유물, 인물모형, 디오라마, 기타)

● 교통 안내

- 포항시내에서 160번을 이용 포항의료원에서 하차
- 포항시내에서 서쪽에 위치 시 전역에서 5~15분내 접근가능(포항의료원, 해양경찰서 주위에 위치함)



대한광복단기념관

소개

대한광복군은 1913년 경북 풍기에서 채기중·유창순·한훈·류장렬·김상옥·강병수·김병렬·정운홍·황상규·정진화·장두환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비밀결사단체로 일제 총독부 요인과 친일 악질배 처단등 무장활동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범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대구의 국권회복단 또는 독립의군부와 통합하여 1915년 7월 15일 대구달성공원 집회에서 박상진을 충사령관으로 하는 대한광복회를 조직 확대하고 1916년 노백린, 김좌진, 신대현, 윤영중, 기명섭, 이현 등 유명한 독립투사들이 참가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여 대한광복단으로 개칭하였다. 1917년 친일부호의 처단을 위해 임세규 의사는 칠곡에서, 김한종 의사는 아산에서, 이병호 의사는 보성에서, 한훈 의사는 무교에서 큰 성과를 올려 대한광복단의 명성을 천하에 떨쳤다. 그러나 1918년 이탈자의 밀고로 조직망이 발각되어 박상진 등 37명이 피체되어 가혹한 고문으로 채기중 등 6명이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국내·국외에서 종횡무진으로 혁혁한 투쟁을 펼침으로써 조국광복의 초석(礎石)을 이룬 대한광복단은 우리나라의 크나큰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의 뜻있는 이들의 의지로 2003년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체험 포인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대한광복단기념관을 관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한광복단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민족 독립의 열과 기상이 무엇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참된 민족정신교육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향하면서 분단의 세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우리 겨레에게 독립기념관은 드높은 민족정기를 지켜주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소개

- 위 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76번지
- 시설규모 : 공원부지 17,664평, 기념관, 기념비 3기, 추모공간 등
- 개 관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문 의 : 054-635-3606, <http://www.kwangbokdan.com>

교통안내

- 기 차 : 청량리 → 풍기역 → 택시 5분
- 버 스 : 동서울 터미널 → 영주 → 풍기(버스 30분) → 택시 5분
- 승용차 : 중앙고속도로 풍기IC 5분



실천으로 더 아름다운 우정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하여 밤늦게 하교하기까지 저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친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학생들이 있어 주위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포항이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욱 학생은 작년 11월 9일, 본인이 살고 있는 청림동의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약 5개월 동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증세가 왔다. 그 날 이후 훨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두 손마저 마비되어 특별장치를 사용해야 식사가 가능한 실정으로 현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병원진료도 중단한 상태이다.

한동안 김 군은 불편한 몸으로 멀리 청림동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해왔다. 친구를 위해 같은 학년의 권혁민, 김보현, 최원석 학생은 등하교 시간마다 김 군과 동행했다. 특히 청림동에서 살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업고 오르내려야 했다. 교내에서는 세 친구들이 이동은 물론 대소변까지 맡아왔다. 식사시간에는 같은 학년의 김노을 학생이 도와주고 있다.

몸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김 군은 대입수능을 앞두고 야간자율학습까지 참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상담사가 되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다. 유영호 담임선생님께서는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 중에도 자주 화장실을 드나들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며 장애인 친구와 함께 가는 아이들의 두터운 우정이 참으로 아름답다.”며 제자들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에서 (2013. 6. 15 포항이동고등학교 송택경 님의 글)





금메달이 더욱 빛나는 이유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예천양궁선수들이 유례없는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예천동부초에서 획득한 6개의 금메달, 예천중학교 1개의 금메달은 우리지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양궁 선수를 배출한 예천지역 학생들이 거양한 이번 성과는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국가를 빛낼 밑거름이 될 것이기에 우리 도민과 군민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입상의 기쁨 뒤에는 그 동안 불철주야 예천양궁을 위해 지원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예천교육지원청 임상원 교육장님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양궁선수들의 연습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해 주셨고, 양궁 연습장 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궁 감독과 코치 등 일선에서 선수들을 직접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예천양궁의 발전을 위한 지도 의견도 주셨습니다. 항상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의 리더십으로 예천을 세계적인 양궁 인재들이 요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주신 임상원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교육지도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며,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학부모로서 임상원 교육장님께 감사와 더불어 칭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에서 (2013. 5. 31 오연희 님의 글)





2013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은 5월 20일에 도교육청에서 23개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과 경상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날 연수는 경북 교육발전에 대한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의무, 기능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의 활성화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앞서 「2013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2012년도에 경북교육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홍정근 군위지역협의회장, 노광희 성주지역협의회장, 정재윤 예천지역협의회장, 김대업 울진지역협의회장 등 4명에게 교육부장관 감사장을 이영우 교육감이 대리 수여하였다.



등굣길 첫인사! 녹색어머니와 함께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7월 2일에 ‘등굣길 첫인사 녹색어머니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3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녹색어머니회경북연합회와 함께 안전하고 활기찬 등굣길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아침 등굣길에서 녹색어머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첫인사를 나눔으로써 아침 등굣길을 더욱더 활기차게 맞이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영우 교육감은 “등굣길 인사 습관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즐거운 등굣길이 되어 행복한 학교생활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줄어지는 결과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하절기 에너지·온실가스 줄이기 5대 실천수칙

- 01** 쿨맵시로 냉방온도 2°C 높이기 (여름철 냉방 온도는 26°C~28°C로 유지)
노타이, 반팔셔츠 착용으로 냉방을 2도 높이면 연간 197만톤의 CO2가 줄어듭니다.
(노타이, 반팔셔츠 등은 체온을 2°C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
- 02**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대기전력은 가전제품 이용전력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 03**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이용하기
1대 당 연간 전력 144kWh, CO2 65kg 감축, 17천원이 절약됩니다.
- 04** 점심시간에 조명과 냉방기를 끄기
하루 1시간 형광등을 15개 끄면 연간 약 74kg의 CO2가 줄어듭니다.
- 05** 실내 전등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고, 현등 끄기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바꾸면 연간 15kg의 CO2가 줄어듭니다.



안전한 물놀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물놀이

물놀이 안전 수칙

-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 공복이나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물놀이 도중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얼굴과 피부가 창백할 때 / 피부에 소름이 들고 자가울 때 / 몸이 떨릴 때

물놀이 안전 수칙

- 물 근처에 자녀를 혼자 두거나 형제끼리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
- 야외 물놀이일 경우 쉽게 벗겨지는 슬리퍼 대신 잠금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게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 행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학교보건
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보상금(최고 5천만원) 및 신고자 보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공직자 부조리 행위(금품수수 · 향응, 부당이득, 알선 · 청탁 행위 등)를 누구나 신고 가능
고발자 및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경북교육청홈페이지(<http://www.gbe.kr>) → 청렴행정(초기화면 중앙 하단) → 신고센터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